



국립국어원 소개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필요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을 주관하고, 국어사전 편찬으로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의 국외 보급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국립국어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1.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 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2. 가나다 전화 및 온라인 가나다

- **가나다 전화:** 전화 상담원이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함.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1599-9979(국어친구)
- **온라인 가나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함.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하여 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립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 정기 수신 요청: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소식지(온라인) 신청서 작성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malteo.korean.go.kr)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4년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말을 가꾸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5. 디지털 한글 박물관(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함.
-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 학술정보관 등)을 운영함.

차 례

1. 한글 바르게 알기 1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13
3. 띄어쓰기 37
4. 구별하여 써야 할 말 43
5. 외래어 표기 55
6. 국어의 발음 59
7. 통신 언어 67
8. 효과적인 의사 전달 81



1. 한글 바르게 알기

1.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창제하셨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해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인 한글을 창제하신 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글자인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워낙 어려워서 백성들이 널리 두루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전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몸소 만든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까닭을 알 수 있는 자료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훈민정음 해례본』

世·생宗宗 御·영製·정 訓·훈민민正·정음음

나·랏·말·쏘·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뫓·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성·이 니
 르·고·져 ·홍 ·배 이·셔·도, ㅁ·츄·내 제 ·쁘·들 시·러 꺾·디
 :뫓 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영·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똥 字·종·를 鳴·그·노·니, :사·람·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안·한·크 호·고·져 홍
 썩·르·미니·라.

『훈민정음 언해본』

우리말의 음운 체계가 중국과 달라서 본디 중국어를 기록하듯 마련된 한자로는 통하지 않으므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여도, 끝내 자기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에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강신항 교수 역

2. ‘한글’이란 명칭은 누가 붙였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처음 만든 글자인 한글은 그 당시에는 한글이라 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처음으로 이름 붙이신 분은 한희샘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이라는 명칭을 1910년 무렵부터 ‘크고 바르며 세상에 들도 없는 글, 대한의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우리글을 이렇게 부른 까닭은 당시에 우리글을 ‘언문’이라 하면서 낮추

어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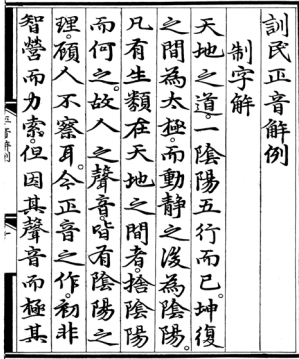
사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우리의 글자 훈민정음은 ‘정음’, ‘언문’, ‘언서’, ‘반절’, ‘암클’, ‘상말글’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가운데 ‘언문, 언서, 암클, 상말글’ 따위에는 우리의 글인 훈민정음을 한자에 비해 낮추어 보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3. ‘훈민정음’이란 무엇일까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손수 만든 새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새 글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한문으로 풀이해 놓은 책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원본 훈민정음’이라고 하며, 줄여서 그냥 ‘훈민정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문(우리말)으로 풀이한 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훈민정음 국역본’ 또는 ‘훈민정음 언해본’이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4. 한글은 어떻게 널리 쓰이게 되었을까요?

한글은 창제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 문자로 사용되었을 때 불편함이 없겠는지 알아보기 위해 3년 동안의 시험 사용 기간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 한글이 문자로서 매우 훌륭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글자가 만들어진 지 3년 만인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공식적으로 이를 백성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한글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유학자들 중에는 이 문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만리는 상소를 올려서 한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한글이 매우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히 ‘월인천강지곡’을 짓기도 하고, ‘용비어천

가'를 짓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이후 조선의 여러 임금들도 한글 서적 편찬 사업을 시행하여 한글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한글은 당시 지배 계급인 양반들에게 천대받았으나 김만중, 허균, 윤선도, 정철 등과 같은 이들은 그 신분이 양반임에도 한글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옥과 같은 작품을 대부분 한글로 집필하였습니다.

한글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개화기 무렵입니다. 한글은 개화기 이전에 이미 일반 백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쓰였지만, 개화기 무렵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한글이 워낙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형성된 면이 크지만, '독립신문'의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 박사가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1896년 4월 7일 발행한 한글 전용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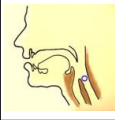
오늘날 한글은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는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어는 언어의 영향력 면에서 세계 10대 언어에 당당히 포함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1989년 6월에 유네스코에서는 글자를 잘 못 읽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에 상을 주기로 하면서, 그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해상(文解賞)(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와 한글이 오늘날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5.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어떠할까요?

세종대왕이 처음에 만든 글자는 ‘ㄱ, ㅋ, ㅇ, ㆁ, ㄷ, ㅌ, ㄴ, ㄷ, ㅍ, ㅍ, ㅊ, ㅊ, ㅅ, ㅆ, ㅇ, ㆁ, ㄹ, ㄹ, ㅁ, ㅁ, ㅂ, ㅂ, ㅅ, ㅅ, ㅇ, ㆁ, ㄹ, ㄹ’는 닿소리 글자이고, ‘ㅇ, ㆁ, ㅁ, ㅁ, ㅂ, ㅂ, ㅅ, ㅅ, ㅇ, ㆁ, ㄹ, ㄹ’는 홀소리 글자입니다.

닿소리의 기본 글자는 ‘ㄱ, ㆁ, ㅍ, ㅅ, ㅇ’이고, 홀소리의 기본 글자는 ‘ㅇ, ㆁ, ㅁ’입니다. 세종대왕은 닿소리의 기본 글자는 입술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홀소리의 기본 글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ㄱ	ㆁ	ㅍ	ㅅ	ㅇ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술 모양	이 모양	목구멍 모양

·	ㅡ	ㅣ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의 서 있는 모양

한편, 닿소리의 나머지 글자인 ‘ㄱ, ㄷ, ㅌ, ㅂ, ㅈ, ㅊ, ㅇ, ㅎ’은 기본이 되는 글자인 ‘ㄱ, ㄴ, ㅁ, ㅅ,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ㄱ	→	ㅋ		
ㄴ	→	ㄸ	→	ㅌ
ㅁ	→	ㅃ	→	ㅍ
ㅅ	→	ㅆ	→	ㅈ
ㅇ	→	ㆁ	→	ㆅ

그리고 홀소리의 나머지 글자인 ‘ㄱ, ㅏ, ㅓ, ㅑ, ㅕ, ㅗ, ㅛ, ㅜ, ㅠ, ㅠ, ㅋ’는 기본이 되는 글자인 ‘·, 一, |’를 바탕으로 ‘一’와 ‘·’를 합하여 ‘ㄱ, ㅓ’를 만들고, ‘|’와 ‘·’를 합하여 ‘ㅏ, ㅑ’를 만든 후, 여기에 다시 ‘·’를 한 번씩 더하여 ‘ㅕ, ㅗ, ㅛ, ㅜ, ㅠ, ㅠ, ㅋ’를 만들었습니다.

一	+	·	→	ㄱ, ㅓ
	+	·	→	ㅏ, ㅑ
ㄱ	+	·	→	ㅕ
ㅓ	+	·	→	ㅗ
ㅏ	+	·	→	ㅛ
ㅑ	+	·	→	ㅜ
ㅕ	+	·	→	ㅠ

6. 한글의 어떤 점이 문자로서 특히 뛰어난가요?

일찍이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로버트 램지(R. Ramsey) 교수는 서양의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을 거쳐서 변형되고 개량되어 온 것이지만 한글은 발명된 것이라고 하면서, 한글을 세계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펄 벅(Pearl Buck)은 한글이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이지만 이들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이라도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그 우수성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글의 어떠한 점이 문자로서 특히 뛰어난가요?

첫째,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글은 몇 개의 기본자를 가지고 이를 합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자모 24자를 합성하면 무려 11,172자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어떠한 소리도 대부분 적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11,172자를 한자처럼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외워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글은 그럴 필요 없이, 단지 24자만으로 이 모든 글자들을 조합해 낼 수 있으니 과학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한글은 그 사용 방법이 매우 간편합니다. 컴퓨터로 한글을 입력해 보면 그 간편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로 입력할 때 그 입력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이러한 점은 한글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 걸맞은 문자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글은 그 입력 방식이 간편하여 다른 문자에 비해 매우 빠르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엄지족’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한글이 뛰어나다는 점은 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창제자와 창제 목적이 분명한 글자라는 점, 각종 디자인에 쉽게 응용될 수 있는 문자라는 점, 다른 나라의 말을 그 원음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점 등도 한글이 지닌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한글을 잘 부러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자료의 ‘설레임’은 설렘, ‘아지랭이’는 아지랑이, ‘아울렛’은 아울렛으로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쿠기&크림’도 굳이 외래어와 외국 문자로 적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자와 크림’으로 알아보기 쉽게 적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적지 않은 까닭은 서양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보다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입니다.

무분별하게 외국말을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 나오는 ‘나인스에비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한글로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요컨대, 한글을 잘 부러 쓰려면 어문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지녀야 하며, 낮은 외국말에 대응되는 우리말의 한글 표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리는 지금 무분별한 외래어와 국적 불명의 언어로 된 간판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고 고운 한글 표기로 간판을 만들고 무분별한 외래어와 국적 불명의 언어로 된 간판이나 상표를 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 다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해 보세요.

- 국가 기관 NEIS, BK21, FTA, DTI
- 언론 기관 DJ, YS, JP, MB
- 경제계 KB, NH, SK, LG, KT, KT&G
- 연예계 HOT, SES, SS501
- 국민들 UCC, DMB, GPS, PB 센터, MP3, CEO, COO, CFO, 셀카, 디캠, 디카

- 다음의 외국어 또는 낱선 외래어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 보세요.

다듬을 말	의미	다듬은 말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	길도우미
레시피	음식의 조리법을 뜻하는 요리 용어를 가리켜 이르는 말.	
마일리지	회원의 이용 실적을 적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기나 철도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사용한 총거리에 비례하여 항공사나 철도 회사에서 배푸는 여러 가지 혜택. 영화관,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도 손님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한 혜택을 돌려주는 일이 많음.	이용 실적, 이용 점수
메신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문자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함.	쪽지창
스크린도어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찾길에 떨어지거나, 열차와 타는 곳 사이에 발이 끼는 따위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문.	
위터파크	물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공공시설.	
이모티콘	컴퓨터 자판의 각종 기호와 글자를 조합해서 감정, 모양, 소리 따위를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	그림말
포스트잇	한쪽 끝의 뒷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 종이나 벽에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종이쪽.	

※ 더 궁금한 점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장승배기 역 근처 쌍용 아파트 있잖어? 그 앞에 “북 카페” 라는 대서 일몰에 봉사활동 할려구 그대. 그 집이 이층이니 나는 아랫층에서 하고 너는 윗층에서 하면 될꺼야. 태는지 않태는지 문짜해. 끝나고 떡볶기 먹던지 피자집에서 피자 먹던지 하자.

- 다음은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변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을 찾아보세요.

- 샘이 깊은 물(음식점)
- 신고 메고(신과 가방을 파는 가게)
-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안경점)
- 씨앗을 뿌리는 사람(출판사)
-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전통한복집)
- 해찬들(식품회사)
- 아이꿈터 어린이집(유치원)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 반드시 / 반듯이

한돌이는 위인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참 읽었더니 조금 지루해졌습니다. 남은 부분을 마저 읽고 싶기도 하고 지루해서 그만 읽고 싶기도 해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옆으로 누어 읽었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오시던 엄마가 이 모습을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엄마: 한돌아! 책은 책상에 **반듯이** 앉아 보아야 한다.

한돌: 왜요, 누워서 보면 편한데.

엄마: 자세가 안 좋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에 있는 뼈도 휘어진단다.

한돌: 그럼,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앉아야겠군요.

‘반드시’와 ‘반듯이’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내일 반드시 오너라.”처럼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가 맞고,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라.”처럼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일 때는 ‘반듯이’가 맞습니다. ‘반듯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반듯이’로 써야 합니다.

예) 내일 반드시(×반듯하게) 오너라.

숙제는 반드시(×반듯하게) 7시까지 해 놓아라.

책상에 반듯이(반듯하게) 앉아라.

책꽂이에 책을 반듯이(반듯하게) 꽂아라.

♠ 한글 맞춤법 제57항 참고.

• 돼라(○) / 되라(×)

오늘은 수업 시간에 자기의 장래 희망을 말해 보았습니다. 재민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지훈이는 컴퓨터 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돌: 선생님! 저는 ‘전기 박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전기 박사가 뭐하는 사람이니?

한돌: 텔레비전이나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사람요.

선생님: 그런 사람을 전기 기술자라고 한단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한돌: 지난번에 텔레비전이 고장 났었는데, 기술자 아저씨가

와서 잠깐 만지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선생님: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돼라’로 적어야 할지, ‘되라’로 적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돼라’로 적어야 맞습니다. ‘무엇이 되어라’라고 할 때는 ‘되-’에 ‘-어라’가 붙어 ‘되어라’가 되고, 이것이 줄면 ‘돼라’가 됩니다. ‘보아라’가 줄어 ‘봐라’로 되거나 ‘주어라’가 줄어 ‘줘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 예) 괴다: 괴-+어라 → 괴어라(괘라)
- 되다: 되-+어라 → 되어라(돼라)
- 뵈다: 뵈-+어라 → 뵈어라(뵘라)
- 쫓다: 쫓-+어라 → 쫓어라(쫘라)
- 외다: 외-+어라 → 외어라(왜라)
- 죄다: 죄-+어라 → 죄어라(죄라)

♠ 한글 맞춤법 규정 제35항 참고.

• 만듦(○) / 만듸(×)

한돌이는 아빠가 사 주신 조립식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돌이는 몇 시간 동안 로봇을 열심히 조립하여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엄마: 한돌아! 이제 그만하고, 일기 써야지.

한돌: 예, 쓸게요. 오늘은 일기에 쓸 내용이 있어요.

엄마: 그래.

한돌이는 일기장을 펴서 제목에 “드디어 로봇을 **만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는 로봇을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썼습니다.

“로봇을 만들.”의 ‘만들’은 ‘만듭’으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가 ‘감(가+口)’이 되는 것처럼 ‘만들다’도 ‘만들-’에 ‘-口’이 붙으면 ‘만듭’이 됩니다. ‘만듭이, 만듭으로’가 ‘만들미, 만들므로’로 소리 나는 것으로 보면 받침이 ‘ㄷ’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예) 살다: 살+口 → 샅 ㉠ 집에서 혼자 샅.
 알다: 알+口 → 앓 ㉠ 그 지역을 잘 앓.
 얼다: 얼+口 → 엇 ㉠ 얼음이 엇.
 갈다: 갈+口 → 갇 ㉠ 멧돌로 콩을 갇.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제57항 참고.

• 안 먹어(○) / 앓 먹어(×)

한돌이는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과자를 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를 샀는데, 한글이 먹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글: 오빠! 나 좀 줘.

한돌: 한 개만 먹어.

한글: 아유, 겨우 한 개만 먹으라고. 치사해서 앓 먹어.

‘앓 먹어’의 ‘앓’은 ‘안’으로 써야 맞습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안 먹다, 안 입다, 안 가다’처럼 쓰는 말입니다. ‘앓’은 ‘보지 앓고, 가지 앓았다, 먹지 앓겠다’처럼 ‘앓’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안 먹는다’는 ‘안’을 쓰고, ‘먹지 앓는다’는 ‘앓’을 써야 맞습니다.

• 오뚝이(○) / 오뚜기(×)

돌이 막 지난 사촌 동생 영민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직 걷는 게 서툴러 뒤통뒤통 걸다가 앞으로 쿵 넘어지곤 합니다.

한돌: 엄마, 영민이 참 귀여워요.

엄마: 그래, 걷는 것도 귀엽고, 웃는 것도 참 귀엽지.

한돌: 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는 ‘오뚝이’로 써야 맞습니다. 누워 있는 것이 솟거나 발짝 일어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은 ‘오뚝, 오뚝하다’입니다. “코가 오뚝하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오뚝 일어서서 나갔다.”처럼 씁니다. 그러므로 누워 있던 것이 발짝 일어나는 인형 ‘오뚝이’도 ‘오뚝, 오뚝하다’와 같은 모양으로 적어야 합니다.

• 와이(○) / 와이(×)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날씨도 꽤 쌀쌀합니다. 한돌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조금 배가 곱든 듯하였습니다.

한돌: 엄마! 오늘은 와이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날씨도 쌀쌀하니 떡볶이에 어묵국을 끓여 줄까?

한글: 예, 와 맛있겠다. 오빠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네.

“오늘은 웬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의 ‘웬지’는 ‘왓지’로 써야 맞습니다. ‘왜인지(=왜 그런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왜’라는 모습이 살아 있는 ‘왓지’로 씁니다. ‘웬 떡, 웬 날벼락, 웬 걱정, 웬 사람, 웬일(※ ‘웬일’은 한 단어여서 붙여 씀.)’처럼 ‘어찌 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일 때는 ‘웬’을 쓰지만, ‘왜인지’의 준말인 ‘왓지’는 ‘왓’을 써야 맞습니다.

웬: 왓지 좋다

웬: 웬일이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웬 걱정을 그렇게 하니.

• 금세(○) / 금새(×)

오랜만에 엄마와 한돌이, 한글이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장난감을 파는 곳에서 정신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엄마: 지하 슈퍼에 가서 채소를 사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래?

한돌: 그러세요. 저희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엄마: 금세 갔다 올게.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

‘금새 갔다 올게’의 ‘금새’는 ‘금세’로 적어야 맞습니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에’의 표기가 살아 있는 ‘금세’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 떡볶이(○) / 떡볶기(×) / 떡복기(×) / 떡뽀끼(×)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웬일인지 재민이가 자기가 한턱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용돈을 탔다나요.

한돌: 그래, 뭘 사 줄래?

재민: 먹고 싶은 걸 말해 봐.

수민: 떡볶기 어때?

한돌, 재민: 좋아.

‘떡볶이’를 ‘떡볶기, 떡복기’로 쓰거나 ‘떡뽀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떡볶이’나 ‘떡볶기, 떡복기, 떡뽀끼’로 적어도 소리는 모두 [떡뽀끼]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입니다. ‘떡볶이’는 ‘떡을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볶은 음식’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볶다’ 동사의 본 모양과 같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볶는 동작’이 아니라 ‘떡을 볶은 음식’을 나타내므로 ‘떡볶기’로 쓰면 틀리고 ‘떡볶이’로 적어야 맞습니다.

2. 틀리기 쉬운 종결 어미형

- 거예요(○) / 거에요(×)

한돌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한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돌이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바퀴벌레를 파리채로 잡은 한돌이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한돌: 엄마! 엄마! 제 방으로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제가 잡았어요.

엄마: 그래?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나 보구나.

한돌: 제가 잡았으니, 이젠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랬으면 좋겠지만, 바퀴벌레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젠 없을 거예요.”의 ‘거예요’는 ‘거예요’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책상이어요, 연필이에요’처럼 ‘-이어요, -이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는 말 다음에는 ‘-이어요, -이에요’가 준 ‘-여요, -예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어요, 책상이예요’처럼 쓰고, ‘국수’는 ‘국수여요, 국수예요’처럼 씁니다. ‘거예요’의 ‘거’는 받침이 없는 말이므로 ‘거여요, 거예요’로 써야 맞습니다.

받침 있는 말: 책상이어요, 책상이예요/책상이예요(×)

받침 없는 말: 거이어요, 거이에요

→ 거여요, 거예요(○) / 거예요(×)

국수이어요, 국수이에요

→ 국수여요, 국수예요(○) / 국수예요(×)

• -이였다(○) / -이였다(×)

한들이네 마당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었습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 키가 작은 민들레, 닭뿔 같은 맨드라미,
손톱에 물을 들이는 붉은 봉숭아…….

한글: 엄마! 꽃밭에 꽃들이 피니까 마당이 아주 예뻐요.
엄마: 그래. 아주 예쁘구나. 한글이는 어떤 꽃이 제일 좋
으니?
한글: 예전엔 장미꽃이**였**는데, 지금은 작은 민들레가 좋아요

‘장미꽃이였는데’는 ‘장미꽃이었는데’로 써야 맞습니다. ‘떡
다’의 ‘떡.’에 ‘-였.’이 붙어 ‘떡였다’가 되는 것처럼 ‘장미꽃이
다’의 ‘장미꽃이.’에 ‘-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었
다’의 ‘이.’가 뒤의 ‘-였.’에 영향을 주어 [-열따]로 소리 나기
때문에 ‘-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이어, 업히어,
굴리어, 잡히었다’를 ‘녹이여, 업히여, 굴리여, 잡히였다’로 잘
못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녹이다,
업히다, 굴리다, 잡히다’에 ‘-어, -였.’이 붙은 말이므로, ‘녹이
어, 업히어, 굴리어, 잡히었다’로 적어야 맞습니다.

예) 녹이+-어 → 녹이어(○) / 녹이여(×)
업히+-어 → 업히어(○) / 업히여(×)
굴리+-어 → 굴리어(○) / 굴리여(×)
잡히+-었다 → 잡히었다(○) / 잡히였다(×)

- -르걸(○) / -르꼴(×)

엄마가 시장에 가시면서 한돌이와 한글이에게 어질러 놓은 자기 방을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는 재미있는 만화를 보느라 방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동생 한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동화책도 바로 꽂아 놓고 인형도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방 정리는 했니?

한글: 예, 엄마. 그런데 오빠는 안 했어요.

엄마: 그래. 그럼 정리를 잘한 우리 한글이만 용돈을 주어야겠구나.

한돌: 저도 지금 할게요. 저도 용돈 주세요.

엄마: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한돌: 나도 빨리 할걸.

“나도 빨리 할걸.”의 ‘할걸’을 소리 나는 대로 ‘할꼴’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의 ‘-르걸’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를 과거로 표현하면 ‘내가 한걸’처럼 됩니다. ‘할걸’과 ‘한걸’은 나타내는 시간만 다르고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걸’에서만 ‘-르’ 받침 때문에 뒤의 ‘-걸’이 ‘꼴’로 소리 납니다. 소리는 그렇게 나더라도 ‘한걸’과 ‘할걸’의 ‘걸’은 같은 말이므로 같게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지’와 ‘할게’ 등이 있습니다. 물음을 나타내는 ‘할까, 할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발음은 [ㄱ]로 나더라도 ‘ㄱ’로 적어야 합니다.

예) 밥 먹을걸(○) / 밥 먹을겘(×)
사랑할 거야(○) / 사랑할 꺼야(×)
너 줄게(○) / 너 줄께(×)
누가 할지(○) / 누가 할찌(×)

누가 할까(○) / 누가 할가(×)
어찌할꼬(○) / 어찌할고(×)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3항 참고.

•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오십시요(×)

아빠가 갈비를 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네 가족은 모처럼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 음식점 문에는 “어서 오십시요”라고 적혀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한돌: 아빠! ‘어서 오십시요’가 맞나요, ‘어서 오십시오’가 맞나요?

아빠: 글썄?

엄마: ‘어서 오십시오’가 맞는 표현이야.

“어서 오십시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서 와요”처럼 ‘어서 와’만으로도 말이 되는 경우는 ‘요’를 쓰는 것이 맞지만, “어서 오십시요”처럼 “어서 오십시.”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오’를 써야 합니다.

사과를 먹어(○) : 사과를 먹어요(○) / 사과를 먹어오(×)
손을 잡아(○) : 손을 잡아요(○) / 손을 잡아오(×)

어서 가십시(×) : 어서 가십시오(○) / 어서 가십시오(×)
 많이 드십시(×) : 많이 드십시오(○) / 많이 드십시오(×)

• 있습니다(○) / 있습니다(×)

엄마와 한돌이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 슈퍼마켓 문에는 ‘담배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돌: 엄마! 슈퍼에서 담배도 파나 봐요.

엄마: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담배 있음’은 틀린 말인데.

한돌: 그럼 뭐라고 써야 맞아요.

엄마: ‘담배 **있음**’이라고 해야 돼.

‘있음’과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사과 있음.”은 ‘있다’의 ‘있’에 명사형 ‘-음’을 붙인 것이고, “사과가 있습니다.”에서는 ‘있’에 듣는 사람을 높이는 종결형인 ‘-습니다’를 붙인 것입니다. ‘있음’에서 ‘있’의 받침인 ‘ㅅ’의 소리가 뒤에 연결되면서 [인쑈]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있슴’으로 적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다’를 ‘먹음’, ‘먹습니다’로 쓰는 것처럼 ‘있다’도 ‘있음,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종결형(-습니다) 명사형(-음)

먹다	먹습니다	먹음	예	철수는 밥을 잘 먹음.
있다	있습니다	있음	예	지갑에 돈이 있음.
했다	했습니다	했음	예	오늘 숙제는 다 했음.

♠ 표준어 규정 제17항 참고.

3. 용언의 정확한 활용 형태

- 하늘을 나는 슈퍼맨(○) /
하늘을 날으는 슈퍼맨(×)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맞습니다. 만화에서 ‘하늘을 날으는 슈퍼맨’으로 많이 써서 ‘날으는 슈퍼맨’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슈퍼맨’의 ‘나는’은 ‘날다’에 ‘-는’이 붙으면서 ‘ㄹ’이 없어집니다. ‘집에 사는 오리, 콩을 가는 맷돌’의 ‘사는, 가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날다	살다	갈다
날+-는 → <u>나는</u>	살+-는 → <u>사는</u>	갈+-는 → <u>가는</u>
날+-고 → <u>날고</u>	살+-고 → <u>살고</u>	갈+-고 → <u>갈고</u>
날+-며 → <u>날며</u>	살+-며 → <u>살며</u>	갈+-며 → <u>갈며</u>
날+-아 → <u>날아</u>	살+-아 → <u>살아</u>	갈+-아 → <u>갈아</u>

- 담가(○) / 담궈(×)

엄마는 겨울이 되기 전에 김치를 담가야 한다하면서 배추를 많이 사셨습니다.

한돌: 엄마! 왜 배추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 겨울에는 채소가 많지 않으니까, 김치를 미리 **담궈** 놓고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걸 ‘김장’이라고 한단다.

한돌: 엄마, 저도 김치 담그는 것을 도울게요.

“김치를 미리 담궈 놓고”의 ‘담궈’는 ‘담가’로 써야 맞습니다. ‘담그다’는 ‘담가, 담궜다’로 모습을 달리하며 쓰이는 말입니다. ‘담그’에 ‘-아, -아야, -았-’이 붙으면 ‘그’의 ‘-’가 없어집니다.

예) 담그다(김치를): 담그+아 → 담가, 담그+았다 → 담궜다
 모으다(돈을): 모으+아 → 모아, 모으+았다 → 모았다
 따르다(뒤를): 따르+아 → 따라, 따르+았다 → 따랐다
 아프다(배가): 아프+아 → 아파, 아프+았다 → 아팠다

그래서 “김치를 담궈 먹었다.”나 “김치를 담궜다.”의 ‘담궈, 담궜다’는 ‘담가, 담궜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4. 접미사의 형태

- 깨끗이(○) / 깨끗히(×) /
 깨끗치(×) / 깨끗시(×)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입니다. 아빠는 청소기를 밀고, 엄마는 걸레질을 하십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각각 자기 방 정돈을 해야 합니다.

아빠: 한돌이, 한글이는 각자 자기 방을 깨끗히 정돈해라.

한돌·한글: 네. 깨끗이 정돈할게요.

엄마: 청소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 줄게.

“깨끗이 정돈해라.”에서 ‘깨끗이’를 ‘깨끗히’나 ‘깨끗치’, ‘깨끗시’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는 ‘깨끗하다’의 ‘깨끗’에 ‘-이’가 붙은 말입니다. ‘깨끗하다(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이)’처럼 적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시×), 뚜렷하다 / 뚜렷이(뚜렷시×)
 버젓하다 / 버젓이(버저시×), 어렵풋하다 / 어렵풋이(어렵푸시×)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5항, 제1항 참고

5. 합성어와 같은 종류의 형태

• 손가락 / 젓가락

한돌이네 식구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이고, 한돌이가 좋아하는 멸치도 볶으셨습니다.

한돌: 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있네.

아빠: 멸치볶음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한돌: 예.

엄마: 한돌아, 젓가락 제대로 잡고 먹어라.

한돌: **손가락**은 괜찮은데 **젓가락**은 쓰기가 어려워요.

‘젓가락’은 받침에 ‘ㅅ’을 쓰고, ‘손가락’은 받침에 ‘ㄷ’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말 모두 ‘가락’이 들어가는 말인데,

왜 하나는 ‘ㅅ’를 쓰고 다른 하나는 ‘ㄷ’를 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젓가락’은 젓가락을 의미하는 ‘저’와 ‘가락’이 붙은 말로 이때는 두 말을 연결하는 ‘ㅅ’을 넣은 것입니다. ‘바닷가, 햇볕, 찻잔, 등갯길’에 쓰인 ‘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은 ‘밥 한 술’의 ‘술’이라는 말과 ‘가락’이 붙은 것으로 이때 ‘술’은 ‘가락’을 만나면서 받침 ‘ㄱ’이 ‘ㄷ’으로 변합니다. ‘숟가락’은 받침으로 ‘ㄷ’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젓가락’(저+ㅅ+가락)처럼 ‘ㅅ’이 붙을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루어진 말하면서 ‘젓가락’은 ‘ㅅ’을 받침으로 쓰고, ‘숟가락’은 ‘ㄷ’을 쓰는 것입니다. ‘숟가락’처럼 ‘ㄱ’ 받침이 ‘ㄷ’으로 변한 경우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에 ‘날’이 붙으면 받침 ‘ㄱ’이 ‘ㄷ’으로 바뀌어 ‘이튿날, 사흘날, 나흘날’이 됩니다. 또 ‘음력 삼월 초사흘날’은 ‘삼진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삼질’에 ‘날’이 붙으면서 받침 ‘ㄱ’이 ‘ㄷ’으로 바뀌어 ‘삼진날’이 된 것입니다.

• 며칠(○) / 몇 일(×)

한돌이네 반 친구 찬규가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찬규네 집을 아니?

한돌: 제가 아는데요.

선생님: **몇 일** 동안 찬규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가 보려고 한단다. 한돌이가 선생님과 같이 가 줄래.

한돌: 예.

‘며칠’만이 맞춤법에 맞는 말이고 ‘몇 일’은 잘못된 말입니다. ‘몇 월 몇 일’이라고 할 때는 ‘몇 일’로 써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월’처럼 ‘몇 일’의 ‘몇’을 밝혀 적으려면 ‘몇 월’을 [며월](←면 월)로 발음하는 것처럼 [며딜](←면 일)로 ‘몇’과 ‘일’을 독립적으로 발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며칠]로 소리 나는 것을 보면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말입니다. 즉 ‘며칠’은 ‘몇 일’로 ‘몇’과 ‘일’의 형태를 밝혀 적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어야 합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7항 참고.

6. 발음이 혼동되어 잘못 쓰이는 말

- 가려고(○) / 갈려고(×)

시험이 끝나고 한돌이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한돌아! 너 이제 뭘 할 거니?

한돌: 응. 집에 가려고 해.

친구: 그냥, 집에 갈려고?

한돌: ‘갈려고’가 뭐야, ‘가려고’지.

“집에 갈려고?”의 ‘갈려고’는 ‘가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보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없으면 ‘가려고, 보

려고’처럼 되고, ‘먹다, 잡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있는 말은 ‘먹으려고, 잡으려고’처럼 됩니다. 그런데 ‘가려고, 보려고’나 ‘먹으려고, 잡으려고’를 자주 ‘갈려고, 볼려고’와 ‘먹을려고, 잡을려고’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 보다, 먹다, 잡다’에 ‘-(으)르려고’가 붙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려고’는 ‘-(으)려고’를 잘못 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려고, 볼려고, 먹을려고, 잡을려고’는 ‘가려고, 보려고, 먹으려고, 잡으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가+~려고 → 가려고(○) / 갈려고(×)

보다: 보+~려고 → 보려고(○) / 볼려고(×)

먹다: 먹+~으려고 → 먹으려고(○) / 먹을려고(×)

잡다: 잡+~으려고 → 잡으려고(○) / 잡을려고(×)

• 간질이대(○) / 간지럽히대(○)

한돌이가 동생 한글이의 구슬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글이가 자꾸 달라고 하는데 한돌이는 주려 하지 않습니다.

한돌: 여기 있으니까 한번 빼어 봐. 주먹을 펴면 주지.

한글: 정말? 주먹을 펴면 주는 거야?

한돌: 그럼. 그런데 네가 펼 수 있겠어?

한글: 힘으로는 할 수 없지. 머리를 써야지.

한돌: 어? 이걸 반칙이야. 간질이는 게 어디 있어?

한글: 주먹을 펴라고 했지 간지럽히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

다른 사람을 손으로 건드려서 간지럽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로 ‘간질이다’와 ‘간지럽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예전에는 ‘간질이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간지럽히다’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지럽히다’가 널리 쓰이면서 ‘간지럽히다’도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한편 ‘간지르다’는 ‘간질이다’(‘간질간질’에서 유래. ‘끄덕끄덕/끄덕이다’, ‘망설망설/망설이다’, ‘움직움직/움직이다’, ‘출렁출렁/출렁이다’와 유사한 관계)의 비표준어이므로 ‘간질이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괴발개발(○) / 개발새발(○)

한돌이가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 할 숙제는 많고 글씨가 뻘뻘 엉망입니다.

엄마: 숙제는 다 했니?

한돌: 지금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엄마: 아니? 글씨가 이게 뭐니? 글씨가 괴발개발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한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개발새발 써도 선생님께서는 잘 알아보실 거예요.

글씨를 아무렇게나 마구 써 놓은 것을 가리킬 때, 예전에는 ‘괴발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괴발’은 고양이의 발이고 ‘개발’은 개의 발입니다. 고양이의 발자국과 개의 발자국처럼 글씨

를 아무렇게나 마구 써 놓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발새발’이 널리 쓰이면서 ‘개발새발’도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역시 글씨를 아무렇게나 마구 써 놓은 모습을 뜻합니다.

- 꼬이다(○) / 꼬시다(×)

한돌이는 방과 후에 집에 바로 가서 동생 한글이와 놀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짝꿍 성현이가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성현: 한돌아! 어제 우리 아빠가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시디를 사 오셨어.

한돌: 와! 좋겠다. 재미있?

성현: 굉장히 재미있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할래.

한돌: 자꾸 꼬시지 마. 오늘은 동생하고 놀아 주기로 했어.

성현: 내가 언제 꼬였니?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그런 거지.

“꼬시지 마”의 ‘꼬시지’는 ‘꼬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흔히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게 한다는 뜻으로 ‘꼬시다, 꼬심’ 등의 말은 쓰는데, ‘꼬시다’는 ‘꼬이다(준말: 피다)’를 잘못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꼬시지’는 ‘꼬이지(피지)’로 써야 하고, ‘꼬심’은 ‘꼬임(핼)’으로, ‘꼬셨니’는 ‘꼬였니(피었니)’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꼬이다/피다(○) / 꼬시다(×)

꼬임/펼(○) / 꼬심(×)

꼬였다/피었다(○) / 꼬셨다(×)

- 네가(○) / 너가(×) / 니가(×)

한돌이는 짝꿍 사랑이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초대 받은 아이들은 사랑이 선물을 들고 사랑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음료수 등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물을 풀어 보면서 사랑이는 좋아했습니다.

재민: 사랑아! 난 예쁘게 글씨 쓰라고 예쁜 연필을 샀어.

사랑: 고마워. 그런데 이 머리핀은 누가 샀니?

한돌: 어, 내가 산 거야.

사랑: 니가 준 선물 마음에 들어, 한돌아!

한돌: 네가 기뻐해서 줘서 고마워.

‘네가’를 ‘니가, 너가’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나 ‘너’는 뒤에 ‘는, 를, 도, 만’과 같은 말이 오면 ‘나, 너’ 그대로 쓰지만, ‘가’가 오면 특이하게 ‘내가, 네가’가 됩니다. 그런데 ‘네가’의 ‘네’를 쉽게 소리 내기 위해 ‘니가, 너가’의 ‘니, 너’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를 ‘니가’나 ‘너가’라고 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 너+가 → 네가(○) / 니가(×) / 너가(×)

너+는 → 너는

너+를 → 너를

너+만 → 너만

나+가 → 내가(○) / 나가(×)

나+는 → 나는

나+를 → 나를

나+만 → 나만

• 만날(○) / 맨날(○)

한돌이는 방학 동안 맨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이 다 끝나고 일주일 후면 개학이네요.

엄마: 한돌이 어디 가니?

한돌: 요 앞에서 친구들 만나서 축구하려고요.

엄마: 또? 만날 친구와 놀기만 하고 방학 숙제는 다 했니?

한돌: 아니요.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매일같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만날’일까요? ‘맨날’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만날’만 표준어로 인정했는데, ‘맨날’이 널리 쓰이면서 ‘맨날’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날’과 ‘맨날’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바람(○) / 바램(×)

오늘은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한돌이는 시험을 잘 못 보았는지 울상이었습니다.

재민: 한돌아! 시험 잘 못 보았어?

한돌: 응, 이번에 100점 맞는 것이 내 **바램**이었는데.

재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한돌: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키펀드 사 준다고 했는데.

“내 바램이었는데.”라고 했을 때 ‘바램이다’는 ‘바람이다’로 써야 맞습니다. 자주 ‘나의 바램이야, 나는 바랬다, 네가 빨리 오길 바래’로 씁니다. 그러나 ‘바램, 바랬다, 바래’는 비표준어 이므로 표준어인 ‘바람, 바랐다, 바라’로 써야 맞습니다. ‘자라다’를 ‘자램, 자랬다, 자래’로 쓰지 않고, ‘자람, 자랐다, 자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라다’도 ‘바램, 바랬다, 바래’로 쓰지 않고 ‘바람, 바랐다, 바라’로 써야 합니다.

예)	바라다	자라다
	바라+ㅁ → 바람	자라+ㅁ → 자람
	바라+ㅂ → 바라	자라+ㅂ → 자라
	바라+ㅅ → 바랐다	자라+ㅅ → 자랐다

♠ 표준어 규정 제11항 참고

• **아옹다옹(○) / 아웅다웅(○)**

한돌이와 한글이가 컴퓨터를 서로 먼저 하겠다고 아웅다웅합니다. 결국 한글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엄마: 너희들 또 무슨 일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거야?

한돌: 숙제하려고 컴퓨터를 쓰려고 하는데 한글이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요.

엄마: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 되잖아.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못할망정 매일 싸움이니…….

한돌, 한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로 다투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은 ‘아웅다웅’일까요? ‘아웅다웅’일까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웅다웅’은 ‘아웅다웅’에 비해 느낌이 작은 말입니다.

‘아웅다웅/아웅다웅’과 반대되는 말인,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은 ‘오손도손/오순도순’입니다. “형제들끼리 {오손도손/오순도순} 사이 좋게 잘 지냈다.”와 같이 씁니다.

3. 띄어쓰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조사의 띄어쓰기

- 너밖에 없다(○) / 너 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의 ‘밖에’는 붙여 써야 합니다. ‘오직 너뿐’이라는 의미일 때는 ‘밖에’가 ‘너를, 너뿐, 너만, 너도’의 ‘를, 뿐, 만, 도’와 같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없다, 앓다, 모르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따릅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누가 왔다.”처럼 ‘안에’와 상대되는 ‘밖에’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쟁반같이(○) / 쟁반 같이(×)

‘쟁반같이’의 ‘같이’는 ‘쟁반처럼’의 ‘처럼’과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는 천재 같다’에서 쓰인 ‘같다’에서 온 말이지만 그 의미가 멀어져 지금은 ‘처럼’

과 같이 앞말과 붙여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철수 같은 사람’의 ‘같은’이나 ‘그와 같이 가다’의 ‘같이’는 앞말과 붙여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 같은 달, 쟁반과 같이 둥근 달

- 학생입니다(○) / 학생 입니다(×)

“저는 방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의 ‘학생입니다’는 붙여 써야 합니다. ‘학생입니다’의 ‘입니다’는 ‘학생’이라는 말에 붙여 서술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학생’을 뺀 ‘입니다’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므로, 항상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예) 책상입니다 / 시험 기간이어서 바쁘다. /
편지를 쓰는 것은 소식이 궁금해서입니다.

2.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넘어질 거야(○) / 넘어질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거야.”의 ‘거야’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거야’의 ‘거’는 ‘먹는 것, 입는 것’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먹는 거, 입는 거’처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의

‘것’은 ‘먹는 사과, 입는 옷’의 ‘사과, 옷’과 같은 자리에 있는 말로, ‘사과, 옷’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먹는 사과’처럼 ‘먹는 것’도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것’과 같은 ‘거’도 ‘먹는 거, 입는 거’나 ‘사랑을 할 거야’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 먹는 데 소금을 쳤다(○) / 먹는데 소금을 쳤다(×)

“집에 오는데 사고가 났어”의 ‘오는데’와, “집에 오는 데 몇 시간 걸려?”의 ‘오는 데’는 다른 말입니다. 앞 문장의 ‘-는’은 ‘데’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미를 구성하므로 붙여 써야 하고, 뒤 문장의 ‘데’는 ‘곳, 장소, 일, 것, 경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그가 사는 데(=곳)는 여기서 멀다.”처럼 ‘곳, 장소, 일, 것, 경우’ 중의 하나로 교체해서 말이 되면 띄어 쓰면 됩니다. 또 “그 책을 다 읽는 데(=일에) 삼 일이 걸렸다.”, “머리 아픈 데(=경우에) 먹는 약”처럼 뒤에 ‘-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 앞말과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쓰면 됩니다.

예) 나는 가는데, 너는 안 갈래.

날이 추운데 어딜 가니?

공부를 잘하는 데(에)다가 마음씨도 착해.

• 이럴 수가(○) / 이럴수가(×)

“아니! 이럴 수가?”의 ‘수’는 띄어 써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럴 이유’처럼 ‘이럴 수’의 ‘수’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첫 번째(○) / 첫번째(×)

‘첫 번째’로 띄어 써야 합니다. ‘두 사람, 세 친구’의 ‘두, 세’처럼 ‘첫’도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은 ‘첫, 두, 세, 네, 다섯’과 ‘번째’를 띄어 써야 합니다. 한편,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첫 번째’와 달리 ‘첫째’는 그 전체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 한 권(○) / 한권(×)

‘책 한 권’의 ‘권’은 책을 세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1, 2, 3 등이 올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 개: 사과 한 개 / 권: 책 한 권 /
대: 자동차 세 대
개: 사과 1개 / 권: 책 1권 /
대: 자동차 3대

3. 기타 띄어쓰기

- 스물여섯(○) / 스물 여섯(×)

‘스물여섯’은 붙여 써야 합니다. 수는 만 단위로(즉, 10^4 ,

10⁸, 10¹², 10¹⁶ 단위)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천구백구십구까지는 붙여 쓰고 ‘만’, ‘억(만의 만 배)’, ‘조(억의 만 배)’, ‘경(조의 만 배)’ 등 만 단위 수들을 넘을 경우에 ‘만’, ‘억’, ‘조’, ‘경’ 등과 각각의 천 단위 이하의 수 사이를 띄어 씁니다.

367: 삼백육십칠

4214: 사천이백십사

5만 6321: 오만 \vee 육천삼백이십일

12억 3456만 7898: 십이억 \vee 삼천오백육십만 \vee 칠천팔백구십팔

1경 9999조 9999억 9999만 9999: 일경 \vee 구천구백구십구조 \vee

구천구백구십구억 \vee 구천구백구십구만 \vee 구천구백구십구

♠ 한글 맞춤법 제44항 참고.

- 홍길동 씨(○) / 홍길동씨(×)

“홍길동 씨, 나오세요.”의 ‘홍길동 씨’는 ‘홍길동’과 ‘씨’를 띄어 써야 합니다. ‘씨’는 성이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성이나 이름과 띄어 써야 합니다. 부르는 말로 쓰는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씨’도 띄어 써야 합니다. ‘씨’와 비슷한 ‘군, 양, 님’도 ‘홍길동 군, 홍길순 양, 홍길동 님’으로 띄어 씁니다.

4. 구별하여 써야 할 말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말은 뜻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 꼬리 / 꼬지

새는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새는 ‘꼬리’는 없고 ‘꼬지’가 있습니다. ‘꼬지’는 주로 새의 몸 뒤에 뼈죽 내민 깃을 가리키고, ‘꼬리’는 네발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가리킵니다.

꼬리 ㉠ 소의 꼬리, 강아지 꼬리

꼬지 ㉠ 참새 꼬지

• 넓이 / 너비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크기를 가리키고, ‘너비’는 길이 있는 물건의 폭을 가리킵니다.

넓이 ㉠ 방의 넓이

너비 ㉠ 천의 너비는 대체로 일정하다.

• 봉오리 / 봉우리

비슷한 말이지만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중에 ‘봉오리’와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오리’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고,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꽃봉오리’로 쓰고, ‘산봉우리’로 써야 맞습니다.

봉오리: 꽃봉오리

봉우리: 산봉우리

• 늘이다 / 늘리다

“고무줄을 늘리지 마라.”의 ‘늘리지’는 ‘늘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늘리다’는 ‘넓이(면적)’, ‘부피(양)’, ‘수’, ‘시간’, ‘능력’ 따위를 크게 하거나 많게 한다는 뜻이고, ‘늘이다’는 ‘길이’를 늘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늘이다 ㉠ 고무줄을 ~, 엇가락을 ~

늘리다 ㉠ 마당을 ~, 살림을 ~, 재산을 ~, 부피를 ~,
학생 수를 ~, 휴식 시간을 ~, 세력을 ~, 실
력을 ~

• 다리다 / 달이다

“엄마는 아빠 바지를 달이신다.”의 ‘달이신다’는 ‘다리신다’로 써야 맞습니다. ‘다리다’는 다리미로 옷의 구김을 펴는 것이고, ‘달이다’는 한약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거나 액체 따위를 끓여 진하게 하는 것이다.

다리다 ㉠ 바지를 다리다, 와이셔츠를 다리다
달이다 ㉠ 한약을 달이다, 간장을 달이다

• 다르다 / 틀리다

“그 애는 나와 틀려요.”의 ‘틀려요’는 ‘달라요’로 써야 맞습니다. ‘틀려요’는 “내 답은 틀려요”처럼 맞지 않는다는 말이고, ‘달라요’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때 쓰는 말로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틀려요”, “우리는 성격이 틀려요.”처럼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르다(↔같다):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
칠월이 되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진다.
틀리다(↔맞다):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

• 발명 / 발견

“난 숙제해 주는 로봇을 발견했어.”의 ‘발견’은 ‘발명’으로 써야 맞습니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처 찾지

못한 사물, 진리 등을 찾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명’은 이 세상에는 없는, 쓸모 있는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발견’이고,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발명’입니다.

발견 ㉠ 아메리카 대륙 발견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발명 ㉠ 사람을 대신할 로봇 발명

에디슨은 축음기, 영사기 등을 발명하였다.

• 벌이다 / 벌리다

“재는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해”의 ‘벌리는’은 ‘벌이는’으로 써야 맞습니다. ‘벌이는’은 ‘벌이다’에 ‘-는’이 붙은 것이고, ‘벌리는’은 ‘벌리다’에 ‘-는’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벌리다’는 물건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벌이다’는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여 진행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벌리는’ 것이 맞습니다.

벌리다 ㉠ 입을 벌리다, 다리를 벌리다, 책상 간격을 벌리다

벌이다 ㉠ 잔치를 벌이다, 소동을 벌이다, 자연 보호 운동을 벌이다, 길에서 물건을 벌여 놓고 팔다

• 썩이다 / 썩히다

“부모님 속 좀 작작 썩혀라.”의 ‘썩혀라’는 ‘썩여라’로 써야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썩이다’를 씁니다. ‘썩히다’는 음식물 등의 물질을 부패 시키거나, 물건이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 쓰는 말입니다.

썩이다 ㉠ 속을 썩이다, 기슴을 썩이다

썩히다 ㉠ 음식을 썩히다, 능력을 썩히지 마라.

• 삭이다 / 삭히다

분노(=화), 긴장 따위를 풀어 마음을 가라앉힐 때에나 기침이나 가래 따위를 가라앉힐 때에는 ‘삭이다’를 씁니다. 그리고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한다는 뜻으로는 ‘삭히다’를 씁니다.

삭이다 ㉠ 분노를 삭이다, 생강차는 기침 삭이는 데 좋다

삭히다 ㉠ 김치를 삭히다, 멸치젓을 삭히다, 밥을 삭혀 끓인 감주

• 알갱이 / 알맹이

‘알갱이’는 곡식, 모래 따위와 같이 작고 동글동글하며 단단한 물질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맹이’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작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갱이’는 작고 동글동글한 물질이면 곡식이건 모래건 무엇에든 쓸 수 있지만, ‘알맹이’는 껍질이 있는 것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보리 알맹이(○), 보리 알갱이(○)

모래 알갱이(○), 모래 알맹이(×)

• 윗옷 / 옷옷

“날씨가 추우니 겉에 윗옷을 입어라.”에서 ‘윗옷’은 ‘옷옷’이라고 해야 합니다. ‘윗옷’과 ‘옷옷’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바지나 치마와 짝을 이루어 위에 입는 옷은 ‘윗옷’입니다. 추울 때 맨 겉에 입는 외투나 점퍼 따위는 ‘옷옷’입니다. ‘아래옷’과 짝이 되는 것은 ‘윗옷’이고, ‘속옷’과 짝이 되는 것은 ‘옷옷’(=겉옷)입니다.

바지는 아래옷[하의(下衣)], 셔츠는 윗옷[상의(上衣)]

내복은 속옷[내의(內衣)], 점퍼는 옷옷[겉옷, 외의(外衣)]

• 입 / 부리 / 주둥이 / 아가리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입니다. 새들은 이런 기관이 뿔처럼 딱딱하고 길고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때는 ‘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참새나 독수리는 ‘입’이 아니라 ‘부리’로 먹이를 먹는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주둥이’나 ‘아가리’는 동물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주전자 주둥이, 물동이 아가리’처럼 사물에 쓰기도 합니다. ‘주둥이, 아가리’는 사람에게 쓸 때, 상대방을 함부로 낮추는 말이 되므로 사람에게는 쓰기 곤란한 말입니다.

- 작다 / 적다

“나는 용돈이 작다.”의 ‘작다’는 ‘적다’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작다’는 크기가 보통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키고, ‘적다’는 수나 양이 보통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크다’의 반대말이 ‘작다’이고, ‘많다’의 반대말이 ‘적다’인 것을 기억하면 언제나 정확하게 구별하여 쓸 수 있습니다.

- 예) (키가) 작다 ↔ 크다
- (발이) 작다 ↔ 크다
- (옷이) 작다 ↔ 크다
- (양이) 적다 ↔ 많다
- (관심이) 적다 ↔ 많다
- (피해가) 적다 ↔ 많다
- (용돈이) 적다 ↔ 많다

- 너머 / 넘어

“저 산 넘어에는”의 ‘넘어’는 ‘너머’로 써야 맞습니다. ‘너머’와 ‘넘어’는 소리가 같아 어떤 때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혼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머’와 ‘넘어’는 구별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산 너머’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는 말이고, ‘산 넘어’는 산을 넘는 동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산 너머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와 같이 쓸 때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므로 ‘너머’를 써야 맞고, “산을 넘어가 보지 않아 몰라.”와 같이 직접 넘는 동작을 뜻할 때는 ‘넘어’를 써야 맞습

니다.

• -든가 / -던가

“김치를 먹던가 시금치를 먹던가”의 ‘먹던가’는 ‘먹든가’로 써야 맞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말은 ‘-든가 -든가’가 맞습니다. “그날 그가 왔던가?”처럼 전에 있던 일을 오늘 이야기할 때는 ‘-던가’를 쓰는 것이 맞지만, 선택을 할 때는 ‘-든가’가 맞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과 ‘밥을 얼마나 많이 먹던지 놀랐다.(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말함.)’처럼 씁니다.

• 들러서 / 들려서

“슈퍼에 들러서 오너라.”의 ‘들러서’는 ‘들러서’를 잘못 쓴 것입니다. ‘들르다’는 ‘들러, 들러서’로 써야 맞습니다. ‘들르다’의 기본형을 ‘들리다’인 줄로 착각하여 ‘그곳에 들린다, 들러, 들려서, 들려라, 들렀다’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 오는 것을 말할 때에는 ‘들른다’, ‘들러’, ‘들러서’, ‘들러라’, ‘들렀다’와 같이 써야 맞습니다.

들르다(친구 집):→×(친척 집에) 들르다(○) / 들리다(×)

들르+~다 → 들른다(○) / 들린다(×)

들르+~어 → 들러(○) / 들려(×)

들르+~어서 → 들러서(○) / 들려서(×)

들르+~어라 → 들러라(○) / 들려라(×)

들르+~었다 → 들렀다(○) / 들렸다(×)

• 맞히다 / 맞추다

“정답을 맞춰요.”의 ‘맞춰요(맞추어요)’는 ‘맞혀요(맞히어요)’로 써야 맞습니다. 물음에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은 ‘맞히다’이고, 자신이 쓴 답을 정답과 비교하여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맞추다’입니다. 그리고 퍼즐처럼 그림이나 사진 따위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원래 형태로 완성하는 것은 ‘맞추기’ 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이므로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를 써야 합니다. ‘알아맞히다’의 경우에도 답을 알아서 맞는 답을 말하거나 적는 것이므로 ‘맞히다’를 쓴 ‘알아맞히다’가 맞습니다. 또한 사수가 쓴 화살이나 총알이 표적에 정확히 맞으면, 과녁의 한가운데를 ‘맞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답안지와 친구의 답안지와 맞춰 보았다.”거나 “내 답안지를 정답과 맞춰 보았다.”라고 할 때는 두 개를 비교해 살피는 것이므로 ‘맞추다’를 써야 합니다.

예) 맞추다: 내 답안지와 정답을 맞춰 보았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서로 답을 맞추어 본다.

맞히다: 문제를 맞히다, 과녁 한가운데를 맞히다, 수수께끼를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알아맞히다: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알아맞혀 봐.

• 붙이다 / 부치다

‘우표만 부치면’의 ‘부치면’은 ‘붙이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종이가 벽에 잘 붙다, 껌이 벽에 붙다’의 ‘붙다’에 ‘-이-’가 더 들어간 말이므로 ‘붙이다’로 써야 맞습니다. 즉 풀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 두 물체를 고정시키는 것은 ‘붙이다’입니다. 이와 달리 ‘편지를 친구에게 부치다’처럼 ‘붙다’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으나 원래 뜻에서 떨어진 경우는 ‘부치다’를 씁니다. “우표를 편지에 붙인다.”고 할 때는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지만, 할아버지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일 때는 ‘부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치다: 힘이 부치다(빨리다), 편지를 부치다(보내다),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투표에 부치다(넘겨 맡기다), 논밭을 부치다(경작하다), 빈대떡을 부치다(만들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 손자 / 손녀 / 손주

자식의 아들은 ‘손자’라고 하고 자식의 딸은 ‘손녀’라고 합니다. 손자와 손녀를 모두 아우르는 말은 ‘손주’입니다. 따라서 “예쁜 우리 손주”는 손자에게도 쓸 수 있고 손녀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 날개 / 나래

새가 날 때 사용하는 부위는 무엇일까요? ‘날개’입니다. 새는 날개를 움직여 하늘을 날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래’는 ‘날개’와 의미는 같은데 ‘날개’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문학 작품에 많이 쓰입니다.

날개: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았다.

날개를 다쳐서 날 수가 없다.

나래: 나래를 펴고 훨훨 날았다.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자.

• 냄새 / 내음

‘날개’와 ‘나래’처럼 ‘냄새’와 ‘내음’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냄새’는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기운을 말하지만 ‘내음’은 냄새 중에서 주로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을 가리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음’도 앞에서 본 ‘나래’처럼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냄새: 반찬 냄새, 사람 냄새, 화장실 냄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옷에 음식 냄새가 났다.

내음: 꽃 내음, 바다 내음, 고향 내음

냉이에서 봄 내음이 물씬 난다.

- 눈초리 /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말은 ‘눈초리’도 쓸 수 있고 ‘눈꼬리’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눈꼬리가 처지다’와 ‘눈초리가 처지다’, ‘눈꼬리가 올라가다’와 ‘눈초리가 올라가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초리’에는 귀 쪽에 가까운 눈의 가장자리 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매서운 눈초리’, ‘비난 섞인 눈초리’처럼 눈에 나타나는 표정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서운 눈꼬리’, ‘비난 섞인 눈꼬리’로 표현하지는 않으며, 만약 그렇게 표현한다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5. 외래어 표기

외래어는 본래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인 말이지만 국어 생활에 쓰이면서 국어에 속하게 된 말입니다. 국어의 일부이므로 표기를 통일하여 써야 국민의 언어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은 이 표기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잘못 표기하고 있는 외래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 / 디지탈(×) / 디지틀(×)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digital)’을 ‘디지탈’이나 ‘디지틀’로 쓰기도 하는데 바른 표기는 ‘디지털’입니다.

- 로봇(○) / 로보트(×)

“아빠! 새로 나온 로봇(robot) 사 주세요.”의 ‘로봇’을 ‘로보트’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로봇(robot)’의 ‘봇’처럼 그 나라 말에서 짧게 소리 나는 것은 마지막 자음을 받침으로 적어야 합니다. ‘컵(cup), 바스켓(basket)’의 ‘p, t’가 이에 속하는 말입니다.

- 센터(○) / 센타(×)

“엄마는 문화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신다.”의 ‘센터(center)’를 ‘센타’라고도 하는데, ‘센타’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센티미터(○) / 센치미터(×)

“철수의 키는 약 140센티미터이다.”의 ‘센티미터(centimeter)’를 ‘센치미터’라고도 하는데, ‘센치미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슈퍼(○) / 수퍼(×)

“슈퍼에 가서 비누 좀 사 와라.”의 ‘슈퍼(super)’를 ‘수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슈퍼’는 ‘슈퍼마켓’을 줄여 쓰는 말입니다. ‘슈퍼마켓’은 ‘슈퍼맨(superman), 슈퍼스타(superstar), 슈퍼컴퓨터(supercomputer)’ 등처럼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 주스(○) / 쥬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다.”의 ‘주스(juice)’를 ‘쥬스’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스’가 맞고, ‘쥬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초콜릿(○) / 초콜렛(×)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의 ‘초콜릿(chocolate)’

을 ‘초콜렛’, ‘초코렛’, ‘초컬릿’ 등 여러 가지로 표기하여 혼란이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초콜릿’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케이크(○) / 케익(×)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아라.”의 ‘케이크(cake)’를 ‘케익’이라고도 하는데 ‘케익’은 잘못된 말입니다. ‘케이크’로 써야 맞습니다.

- 텔레비전(○) / 텔레비죤(×)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의 ‘전’은 ‘전’으로 써야 합니다. ‘전 / 전’, ‘천 / 천’처럼 ‘ㄱ’로 쓰거나 ‘ㄷ’로 써도 발음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 천’으로 쓰지 않고, ‘전’과 ‘천’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television)’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파이팅(○) / 화이팅(×)

“우리 팀, 파이팅(fighting!)”의 ‘파이팅’을 ‘화이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에서 [f]로 소리 나는 것은 ‘ㅍ’으로 적어야 합니다. ‘파일(file), 필름(film), 필터(filter)’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프라이팬(○) /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했다.”의 ‘후라이팬’과 ‘계란후라이’는 ‘프라이팬(frypan), 계란프라이(fry)’라고 써야 맞습니다. 원어가 ‘frypan, fry’로 [f]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f]는 ‘ㅍ’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자장면(○) / 짜장면(○)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거무스럼한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 음식을 가리킬 때 예전에는 ‘자장면’만 맞는 표기이고 ‘짜장면’은 틀린 표기라고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짜장면’이라고 쓰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2011년 8월부터는 ‘자장면’과 ‘짜장면’ 모두 바른 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국어의 발음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상 정확한 발음을 하여야 합니다.

1. 자음과 모음의 발음

- 표준어의 자음과 모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ㅙ	ㅛ	ㅝ	ㅞ	ㅟ	ㅠ	ㅡ	ㅣ	ㅣ

자연스러운 음운 규칙이 아닌데 자음을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도록 합니다.

중계석이 좁아(→좁아) 죽겠습니다.

깜쪽같이(→감쪽같이) 사라지고

등도 뚜들겨(→두들겨) 주고

머리 위로 똥그라미(→동그라미)

땀이나 따까(→땀아) 줄까?

빨리 말할 때에도 이중 모음의 발음을 분명히 하면 자기의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간식입니다(→주관식입니다)

치미이자 특겁니다(→취미이자 특겁니다)

기간지 천식(→기관지 천식)

이중 모음 자모 가운데에는 글자로는 이중 모음이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단모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첫소리에 자음이 오면 ‘-’는 [ㅣ]로 발음합니다.

닝큼[닝큼] 무늬[무니] 띄어쓰기[띠어쓰기]

씩어[씨어] 티어[티어] 유희[유히]

또한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 단어의 첫음절에 오지 않는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로 명확히 발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주의/주이]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우리의[우리의/우리에] 협의[혀비/혀비]

2. 소리의 길이

국어는 모음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언어입니다. 같은 글자로 쓰인 단어라도 길이를 달리하여 의미를 구

분할 수 있습니다.

말(語) - 말(馬)

발(簾) - 발(足)

사과(謝過) - 사과(과일)

가장(假裝) - 가장(부사)

앞에 오는 ‘말(語), 발(簾), 사과(謝過), 가장(假裝)’은 모두 길게, 뒤에 오는 단어들은 모두 짧게 발음됩니다.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 위치에서만 긴소리로 발음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짧은소리로 발음됩니다.

눈보라[눈:보라] / 첫눈[천눈]

말씨[말:씨] / 참말[참말]

밤나무[밤:나무] / 쌍동밤[쌍동밤]

멀리[멀:리] / 눈멀다[눈멀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긴소리와 짧은소리의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에서는 이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 문장을 읽는 아나운서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단어에 존재하는 장단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받침의 발음

- 흘받침과 쌍받침의 발음

우리말에서 받침소리가 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한정됩니다. 받침 글자로 쓰이는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합니다.

닭대[닥때]	키웁[키웁]	키웁괘[키웁괘]	웁[웁]
웃대[웃: 때]	있대[있때]	췌[췌]	빳대[빳때]
꿏[꿏]	쫏대[쫏때]	췌[췌]	뵁대[뵁 때]
얏[얏]	달대[달때]		

•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켜 발음합니다.

넛[넛]	넛괘[넛괘]	얏대[안때]	여덫[여덫]
넛대[넛때]	외꿏[외꿏]	핳대[핳때]	꺄[꺄]
닭[닥]	흫괘[흫괘]	맑대[막때]	늑지[늑찌]
삼[삼 :]	젊대[젊 : 때]	읍고[읍꼬]	읍대[읍때]

*예외: 맑게[말께], 밍다[밥 : 때], 늑죽하다[넙쭈카다]

• **받침 ‘ㅎ’의 발음**

자음 글자 중 ‘ㅎ’은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음됩니다.

농고[노코]	쌍지[싸치]	맑고[만:코]
각하[가카]	좁히다[조피다]	말형[마텅]
닿소[다쏘]	닿소[만:쏘]	싫소[실쏘]

놓는[논는] 쌓네[싼네] 앉네[안네]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닳아[다라]

• 그 밖에 주의해야 할 발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발음 중에 다음과 같이 ‘ㅎ’을 탈락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뒷소리를 거센소리로 발음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입한[구이반] → [구이판]
막막하다[막마가다] → [망마카다]

홀받침이나 겹받침 뒤에 모음이 올 경우 홀받침은 표기대로 이어서 읽고, 겹받침은 첫 받침만을 받침으로 하고 두 번째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발음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규칙대로 발음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헐값에[헐까베→헐깎께] 샀다
넋이[넉이→넉씨] 나갔다
빚을[비슬→비즐] 갚고
팔이[파시→파치] 물렸다
끝을[꼬출/꼬슬→꼬틀] 잡고

4. 음운 규칙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음료, 담력, 종로, 승리, 강릉, 막론, 십리

‘ㄴ’이 유음 ‘ㄹ’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인 유음화(流音化)는 고유어와 한자어에 따라 달리 일어나는데, 고유어에서는 예외 없이 뒤에 오는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뀝니다. 한자어도 대개의 경우 ‘ㄹ’ 앞에 서나 뒤에서나 ‘ㄴ’이 ‘ㄹ’로 발음되는데 아래 ‘의견란’, ‘동원령’에서 보듯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궐령] / 의견란[의궐란] 동원령[동원녕]

빠른 발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음 동화가 있는데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아래의 [강 : 기], [옥감]과 같은 부주의한 발음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인꼬](×[익꼬])	꽃길[꼴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뻘](×[뭉뻘])
꽃밭[꼴뻘](×[꼭뻘])	

단어를 소리 내어 읽다 보면 표기상으로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가[강까]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길가[길까] 발바닥[발빠닥] 아침밥[아침뻘] 굴속[굴:쑥]

합성어 결합에서는 어느 경우에 사이시옷이 끼어들어 된소리가 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금은방, 글방, 공부방, 과자방’의 ‘방’은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노래방, 빨래방, 놀이방’은 예사소리로 발음됩니다. 개별 단어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의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에 자음이 오고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올 경우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숨 - 이불[숨 : 니불] 흘 - 이불[흔니불] 막 - 일[망닐]
 샷 - 일[상닐] 맨 - 입[맨닙] 꽃 - 잎[꼴닙]
 내복 - 약[내 : 봉낙] 한 - 여름[한녀름] 색 - 연필[생년필]

사잇소리와 마찬가지로 ‘ㄴ’ 첨가 현상도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이오[육니오×, 유기오○]’, ‘삼일절[삼닐절×, 사밀절○]’, ‘송별연[송별련×, 송벼련○]’, ‘등용문[등농문×, 등용문○]’과 같은 단어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ㄴ’이 첨가되는 환경이 아닌데 다음과 같이 방언의 영향으로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야제[전냐제× → 저냐제○] 참여[참녀× → 차며○]
 특별 강연[특별 강년× → 특별 강연○]
 식이섬유[식이섬뉴× → 식이서뮤○]
 *예외: 검열[검:널○/거:멸○], 금융[금농○/그몽○]

7. 통신 언어

- 바르게 사용하기

1. 통신 언어란 무엇일까요?

한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컴퓨터를 켭니다. 우선 전자우편을 확인하고 자기 블로그(blog)에 들어가서는 게시판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내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 이야기도 하고, 학원에서 몇 시에 만날 건지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한글이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나요? 혹시 집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는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면 불안해지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도 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가”, “어쵸요”, “하이루”와 같은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가리켜 ‘통신 언어’

또는 ‘인터넷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신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2. 통신 언어는 왜 일상어와 다를까요?

학생1 : ㄴ어 집ㄹya?

학생2 : 항경.강타.왕씨훗?

위의 대화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두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은 통신 언어 중 ‘외계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다른 세계의 말이라는 뜻처럼 일상적인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통신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 집이야?”, “학원은 갔다 왔어요?”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틀린 표기를 그대로 쓰는 예

지금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된 것은 1994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온라인에 접속해 채팅(대화)을 했는데 접속 시간에 따라 통신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타자 입력 속도가 느린 경우 대화 도중 상대방이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복잡한 받침을 없애거나 줄여서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틀린 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머시따	멋있다
마니	많이
시러	싫어
가튼	같은
추카	축하

급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받침을 잘못 적는 경우가 생겼고 시간이 아까워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쓰이고 있습니다.

• 단어를 줄여서 표현하는 예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어의 음절 수를 줄이거나 구 구성의 단어를 첫음절만을 따서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조어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사용되면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¹⁾

멜	메일
---	----

1) 영어에서도 채팅을 할 때 긴 문장을 짧게 줄여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HAND	Have a nice day
BB	bye-bye
IC	I see
How r u	How are you?

쌤	선생님
즐감	즐거운 감상
어쇼요	어서 와요
열공	열심히 공부
즐감	즐겁게 감상
악플	악성 댓글
지못미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 맞춤법을 일부러 틀리게 쓰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재미있고 새롭다는 이유로 일부러 맞춤법에 어긋나게 쓰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덩말	정말
안녕	안녕
예뿌당	예쁘다
다쉬	다시

‘정말’을 ‘덩말’로 쓰는 것이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쁘다’를 ‘예뿌당’이라고 쓰면 입력 시간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뿌당’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쉬’를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로 쓰면 네 글자만 입력하면 되는데 ‘다쉬’는 다섯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데도 ‘다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새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나라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는 예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말고도 한글 표기를 해체하여 자음만 쓰거나 한글이 아닌 다른 나라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역시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여겨져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ㅋㅋㅋ	ㅋㅋㅋ, 키키키
ㅎㅎ	하하, 호호
ㄱㅅ	감사
츄ㅋ	축하
ㅈㅅ	죄송
10002	많이
밥5	바보
하2	하이
빠2	bye
b2b2	bye-bye
ㄱㅈ	까
ㅅㅏ ㅏㅏ	나가
그리고	그리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羅 (r)(g)孝	나 알지요.

- 의사나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쓰는 예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그림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션’(emotion)과 ‘아이콘’(icon)을 합쳐 ‘이모티콘’(emoticon)이라고 부릅니다.²⁾ 이런 표현을 이용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재미있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웃는 모습
^^	부끄러워하는 모습
--, --;, -_-	어이없음을 나타내는 모습
T.T, TT.TT	눈물 흘리는 모습

이전에는 입력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쉽게 편하게 쓰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새롭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신 언어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외계어’도 이런 이유로 생겨났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카네기 멜론 대학의 스콧 팔맨(Scott Fahlman)이라는 교수가 1982년에 온라인 전자 게시판에서 웃는 모습으로 ‘:-)’을 처음 사용하면서 급속히 퍼졌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림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어 채팅 방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입니다.

:-), :)	웃는 모습
:'	우는 모습
>:-<	화난 모습
:-0, :0	놀란 모습

3. 통신 언어 사용, 무엇이 문제일까요?

황태후: 그래, 어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느냐?

신채경: 그게요. 제가 물론 ‘열공’해야 할 학생이라 ‘대략난감’이지만요, 저희 집이 ‘당최 압박’을 당해서요. ‘좌우당간’!

황태후: ‘열공’이라? 이는 무슨 시호인 듯도 들리고 ‘대략난감’, ‘좌우당간’, 이진 어떤 뜻의 고사성어이고?

- 2006

‘ ’ 10

앞에서 통신 언어란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통신 언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통신 언어에 쓰이는 표현을 자막으로 그대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못미’나 ‘막장’이라는 단어는 통신 언어로 쓰이던 단어였는데 이젠 일상 대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통신 언어가 신세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주며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신 언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조어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 언어의 유행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말

통신 언어의 사용,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 언어는 컴퓨터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사람, 특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중 40대 이상의 어른들 대부분이 “통신 언어에 대해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제)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통신 언어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에 제시된 것들은 요즘 자주 사용되는 통신 언어의 일부입니다. ○ ○님은 <보기>와 같은 통신 언어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기> 방가, 당근, 어썬요, 시러, ㅎㅎ, 츝, 하이루, 휘리릭, 빠2, ㄸㄸ, ^^, -_-;;

연령	통신 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한다.	통신 언어에 대해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통신 언어에 대해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고 싶지만 통신 언어에 대해 잘 모른다.	기타	무응답
20대	43.4	45.8	9.1	1.7	0.0	0.0
30대	9.8	45.5	36.5	7.6	0.3	0.2
40대	3.3	26.9	58.6	10.1	1.1	0.0
50대	0.6	14.8	68.9	13.3	1.9	0.5
60대 이상	0.4	4.6	77.9	12.5	3.4	1.1

- 국립국어원(2005), “200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보고서”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이런 통신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통신 언어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 이야기도 재미있고 친근한 느낌도 들 수 있어서 청소년들은 통신 언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통신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쓰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0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런 말을 쓰죠? 나는 글을 올릴 때 철자법은 물론 띄어쓰기까지 신경 쓰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 구직란을 뒤져 본 적이 있었는데 ‘안나세요~’, ‘했구여~’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아예 제쳐놓게 되더라고요. 가정 교육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10대: 수행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독후감에도 그렇게 쓰는 애들도 있는데요?

20대: 항상 ‘방가 방가’ 하다가 ‘반갑습니다’라고 써 놓고 보면 되게 어색해요.³⁾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사용했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노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통신 언어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

3) 이 대화는 동아일보 2003년 11월 6일 자 기사 “통신어·신조어 붐 물 ‘대화가 안 돼요’” 중 일부를 대화 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젠 올바른 표기가 더 어색하지는 않은가요?

통신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다가 보면 바른 표기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표기를 계속 쓰다가 보면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해 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는 사람의 처지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좀 더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통신 언어 사용의 또 다른 문제는 욕설이나 비속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이야기할 때 ‘즐’, ‘짱나’, ‘존나’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사진이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간혹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게시판의 글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욕을 써 놓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중에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즐’, ‘짱나’라고 말하곤 대화방에서 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대부분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고 바로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할 경우에는 바로 사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을 헤아리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대화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으면 ‘즐’, ‘짱나’와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젠 습관처럼 굳어져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나’가 욕이라고 생각하면 구세대이고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욕인지 모르고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

4. 좀 더 생각해 보기

1)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²⁴⁾

반성문 L(-_-:)L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꾸벅—..—OO

저는 그저 장난으로 한 것인데 친구가 그렇게까지 괴로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친구를 왕따(1-_-)/~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 주세요.(~.^)

- 내 솔직한 기분을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으니깐 괜찮을까요?
- 선생님께서 장난스럽다고 더 화를 내시지 않으셨을까요?
- 선생님께 편지를 쓰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모티콘을 많이 쓰시나요?

2) 아래의 대화는 블로그에 외계어를 쓴 동생(여진)과 그것이 못마땅한 언니(여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5)

여진: 이 블로그 나만 보려고 만든 거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길 바라는 거지. 나를 더 알리고 싶어. 흔히 외계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야. 그리고 글을 꾸미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해.

여울: 너를 더 알리고 싶으면 쉬운 말을 써야지. 남들이 알지도 못할 외계어를 왜 쓰는 거니?

- 4) 이 반성문은 국립국어원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에서 만든 전자책인 “사이버 세상 댓글 날다”에 제시된 것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 5) 이 대화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에서 만든 “사이버 세상 언어 여행”이라는 전자책에서 나온 내용을 대화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진: 솔직히 난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재미를 느껴. 그렇다고 의사소통을 막으려는 뜻만 있는 건 아냐. 하나 보여 줄까? 이것 좀 봐. ‘여진㉔는 ㉔렇게 글쓰능高 ☆로 ㉔빠게 생각 안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찾으면서 더 효과적이고 따분하지 않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라고.

여울: 좋아. 그런데 이 ‘외계어’가 네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그렇다고 네 블로그 방문자가 더 많아졌어?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글에 대한 믿음도 떨어져.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볼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네 블로그를 찾지는 않을 거야.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은 누구나 알기 쉬워야 환영을 받지.

3) 2005년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는 고등학생 중 70% 이상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욕설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십대들의 일상 대화 현실을 보고한 방송에서도 십대들의 일상 대화 대부분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존나 짜증나.”, “존나 쪽팔리군.”이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4) 혹시 ‘누리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리꾼’은 외래어인 ‘네티즌’을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은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까요?²⁶⁾

이모티콘	그림말
리플	댓글
스팸 메일	쓰레기 편지
홈페이지	누리집
블로그	누리 사랑방, 누리방
이메일	전자우편

-
- 6)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만 다듬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쉽게 바꾸려는 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8. 효과적인 의사 전달

1. 화법의 개념

인간에게 부여된 재능 가운데 웅변보다 값진 것은 없다.

- 윈스턴 처칠

화법(話法)이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법은 ‘말하는 기술’을 뜻하는 화술(話術)이란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화법은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됐고 그 구실도 중요해졌습니다. 화법은 음성 언어, 몸말(body language), 사물 언어(object language)까지 표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법은 기본적으로는 음성으로 표현되지만 신체의 일부분인 눈, 입, 손, 팔, 다리 등의 신체로 표현되는 몸말과 말하는 사람의 머리 모양, 의상, 분장이나 화장, 장식용구 같은 사물 언어까지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화법은 음성 언어의 두 요소인 말하기와 듣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연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의 방법과 함께 듣기의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법은 말하기와 듣기를 아우른 의사소통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에는 음성 언어와 함께 몸말, 사물언어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도 사용됩니다.

2. 화법의 중요성

사람들은 저마다 지닌 강점으로 유명해진다. 나는 내 말씀씨로 유명해졌다.
-오프라 윈프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대부분의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는 말로써 맺어집니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와 같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화법은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쓸데없이 떠들어댄다.’는 몽테스키외의 말과 ‘말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는 순수하고 진지한 침묵이 이따금 남을 설득할 수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잘못된 화법은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일방적인 지시와 강압, 신분과 출신이 통하던 권위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열린 사회로의 변화, 한 방향으로만 정보와 지식이 흐르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모두가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는 정확하고 자신 있는 화법의 구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와 각종 선거에서 방송을 통한 후보자의 화법 능력이 당락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됐고 학교생활이나 직장 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의 화법 능력은 그 개인의 전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됐습니다. 이제 화법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화법 능력은 쉽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꾸준한 노력, 또 말하기와 관계있는 사고(思考)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와 바른 인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신만의 화법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화법을 살펴볼까요?

- **뱃심 화법(이상벽):**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짧게 되묻는 이상벽의 화법은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서로 할 말을 잃지 않는 뱃심화법입니다.
- **스핀지 화법(이금희):** 상대방부터 지식, 지혜뿐만이 아니라 감성이나 기분까지 흡수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 **임기응변 화법(하일성):** 야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나가는 하일성은 생방송에서 실수도 재치 있는 말솜씨로 극복해 나가는 임기응변 화법을 잘 사용합니다.
- **순발 화법(손석희):** 공격적이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객관성과 공정함을 유지한 채 상대의 주장에 곧바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응합니다.
- **유머 화법(황수관):** 어려운 의학 지식이나 보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한 유머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황수관 박사는 대중 강연이나 대중 설득에 유용한 유머 화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유머 화법의 달인이었습니다.

3. 화법의 유형

인생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럴드 포드

화법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화법의 유형을 상황, 형식, 목적에 따라 나누겠습니다.⁷⁾

▪ 상황에 따른 유형

- 화자와 청자의 수 -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화법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한 명이면 일대일의 화법이며 이러한 화법에는 대화, 대담, 상담, 면담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화법 능력이 중요하죠.

일대다의 화법은 연설, 강의, 웅변, 유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인데, 말하는 사람의 화법 능력이 중요시되며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대다의 화법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여러 명인 경우로 토의, 토론, 회의 등이 있습니다. 다대다의 화법

7) 박갑수 외(1996:22-32), 임태섭(1997:7-12) 참조. 임태섭 님은 상황에 따른 분류를 ‘발표, 진행, 참여, 대화’로 나누기도 합니다.

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으며 화법 과정에서는 개인의 화법 능력과 함께 서로 다른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 있는 집단 간의 조정 능력도 중요시됩니다.

- 화자와 청자의 관계—대면 : 비대면, 일방 : 쌍방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화법의 유형으로는 먼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 말하기’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말하기’가 있습니다.

대면 말하기는 대화, 연설, 상담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법이며 비대면 말하기는 방송이나 녹음, 전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두 번째 화법의 유형은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일방적 말하기’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쌍방 말하기’입니다. 일방적 말하기는 강연, 연설, 보고, 설명, 유세, 방송 등이며 쌍방 말하기는 대화, 문답, 토의, 토론, 회의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화법입니다.

▪ 형식에 따른 유형

- 자유로운 형식—대화, 면담, 인사말, 자기소개

자유로운 형식의 화법의 대표적인 예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입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제한 없이 화자와 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고 친교(親交), 정보 전달, 설득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화법은 가정생활과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만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일정한 형식—회의, 토의, 토론, 강연, 웅변**

일정한 형식과 규칙, 제한이 있는 화법의 대표적인 유형은 회의입니다. 모두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아무 때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법의 주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의 화법은 체계적인 훈련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인 말하기입니다.

▪ **목적에 따른 유형**

- **설명—정보 제공 화법**

화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보 제공, 즉 설명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과 정보에서부터 자신의 연구나 조사까지 모든 정보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설명 화법의 유형은 강의, 강연, 보고, 시범 등이 있으며 방법에는 지정, 정의, 분류, 구분, 비교, 대조, 예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설득—인격, 이성, 감정에 의한 호소 화법**

설득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행하는 화법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이 화법의 목적인 거죠.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쌓

은 인격으로 호소하는 방법,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 이성으로써 호소하는 방법,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득 화법의 대표적인 유형은 연설, 토론이나 회의에서의 주장 등이 있습니다.

- 격려—친교, 대화의 화법

격려의 화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화법입니다. 서로 신뢰와 이해심이 있고 부드러운 표현이 사용되며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에 이 화법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이에 해당 하는 유형으로는 인사말, 축하, 격려사 등이 있습니다.

4. 화법의 실례—자기소개 3분 화법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법으로서 자기소개 3분 화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 직장, 동아리, 사회의 모임까지 많은 모임에서 자기소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소개 3분 화법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기소개 3분 화법

이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한 3분 정도의 자기소개 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3분 화법은 짧은 시간에 자신에 관해 인상적인 말하기를 해야 하므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발표 전의 준비

① 자기 분석

자신에 대한 분석과 자신감 없이는 좋은 화법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자신이 발표하는 목적, 화법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 청중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기대감이 나 공신력, 주제에 대한 지식 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연사를 만듭니다.
-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태도가 훌륭한 연사를 만듭니다.
- 화법의 기법을 터득해야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연사는 자신감을 갖고 상황을 장악합니다.⁸⁾

② 청중 파악

자신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제 듣는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청중의 감정을 분석한 후에 청중의 일반 지식, 주제에 대한 지식, 욕구, 감정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③ 발표 불안증 극복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증은 무대공포증, 또는 의사소통 불안증으로 불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발표할 때 말을 심하게 더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8) 좋은 연사의 조건(임태섭, 1997:23-27)

하지만 이런 발표 불안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대처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거나 불안감을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④ 핵심 명제 개발

핵심 명제란 자신의 화법에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그 화법의 주제로서 핵심 명제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화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들이 핵심 명제에 대해 이해한다면 그 화법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아이디어가 많더라도 핵심 명제는 화법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다른 아이디어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⑤ 아이디어 개발

핵심 명제가 화법의 뼈대라면 이제 살과 근육이 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3분 화법에는 배경, 목표, 장점, 단점, 준비, 각오와 같은 아이디어가 사용됩니다.

배경 - 출생, 성장 배경, 가족 사항

목표 -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적, 장래 희망

장점 -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격이나 재능

단점 - 목표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성격이나 버릇

준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해 온 일

각오 - 앞으로의 계획 및 각오

⑥ 개요서 작성

실제 발표를 할 때 대본을 써서 암기해 발표하거나 그것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끌 수 있고 청중과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요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화법의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완성된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개요서만을 작성해서 이를 기초로 화법을 연습하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개요서는 화법의 개요, 즉 주요 아이디어와 세부 내용의 핵심 요소만을 간결하게 적어둔 것입니다.

3분 화법의 개요서 작성은 화자의 생각을 조직화하여 구성하며, 구성한 생각은 정리해서 요약해 쓰고 내용은 대화체로 합니다.

[3분 발표의 개요서 작성]

주제

서론

* 화법 목적

* 핵심 명제

본론

* 주요 아이디어 1(세부 내용)

* 주요 아이디어 2(세부 내용)

* 개선점 및 해결책

결론

* 본론의 핵심 명제 요약

* 맺는말 한 마디

- 발표할 때의 몸가짐과 태도

① 예절을 지킵니다.

발표 전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공손하게 한 후에 “안녕하십니까?”나 “반갑습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다정하게 건넵니다. 발표 중에는 예의를 지키면 청중에게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에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② 바른 자세로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맑은 목소리와 바른 자세는 청중으로 하여금 화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표정을 밝게 하고 쾌활하고 명쾌한 표현을 구사해야 하며, 입 속에서 중얼거리지 말고 끝까지 확실하게 합니다. 발음은 명확하게 하고 어미까지 분명히 발음합니다.

③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뇌에 기억을 새겨 넣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믿을 수 있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며 분위기를 활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을 관찰하며 적당한 속도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살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말을 합니다.

⑤ 시선은 청중을 바라보되 한 방향만 보지 말고 여러 방

향을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봅니다.

⑥ 몸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그러나 너무 부산해서 청중의 시선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손의 움직임은 너무 자주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⑦ 연단에 몸을 기대거나 교탁에 팔을 얹는 행위, 뒷짐을 지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자세 등은 좋지 않습니다.

- 발음과 표현

① 짧고 간결한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요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쓸데없는 말이나 목적에 상반되는 말을 삼가도록 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② 표준 발음법을 지킵니다.

불필요한 경음이나 잘못된 발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속어의 사용은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④ 구어체 표현에 유의합니다.

‘-구요’, ‘-했거든요’, ‘되게’ 등은 말의 권위와 신뢰도를 위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⑤ ‘어벽’의 사용을 줄입니다.

‘에, 음, 스, 아’와 같은 표현을 ‘어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벽을 자주 사용하면 말이 답답해 보이고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 목소리 사용의 다섯 가지 원칙

① 확신에 찬 목소리여야 합니다.

화법을 실행하는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말 한마디에도 힘을 실음으로써 청중이 연사가 하는 말을 믿게 합니다.

② 굳건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청중은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 굳건한 연사의 목소리에 신뢰감을 갖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아랫배로 소리를 내는 훈련을 쌓음으로써 목소리를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거나, 아랫배를 끌어당기면서 소리를 내면 좀 더 강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호흡을 하고, 성대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좀 더 목소리를 편안하게 낼 수 있습니다.

③ 발음이 분명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발표를 할 때는 발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유를 갖고 깊은 목소리를 내며, 침착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청중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에서는 맨 뒤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목이 쉬지 않도록 평소에 연습해 뒀어야 합니다.

⑤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좋은 화법을 하기 위해서는 말의 완급, 강약, 고저, 장단, 쉬기, 강조 등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한 번은 대화식으로 한 번은 강의식으로, 절정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연설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지루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화법의 생명은 좋은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야기할 때의 주의점

① 말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합니다.

② 말하는 사람은 시선을 마이크에 두지 말고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③ 마이크를 자꾸 이리저리 바꾸어 잡지 않습니다.

④ 숨을 들이쉬는 소리나 내쉬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입과 마이크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⑤ 목소리를 강하게 낼 때는 마이크로폰을 입에서 10~15 센티미터 정도 떼거나, 정면에서 30도 정도 어긋나게

두고 발성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너무 강하거나 소리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경청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하기가 아니다. 듣기다

- 잭웰치

듣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 만큼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적절한 의견과 이해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마음과 자세는 상대의 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들려면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하며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미소와 적당한 눈 깜박임, 고개 끄덕임 등도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청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갖습니다.
- 올바른 시선 처리 기술을 배웁니다.
-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듣습니다.
- 맞장구치면서 듣습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화법의 개념과 중요성, 유형, 그리고 실례로서 자기소개 3분 화법 발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자기소개의 화법이 중요시됩니다. 자기소개는 모든 화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표할 때의 몸가짐과 태도, 발음, 목소리에 관한 원칙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화법에서 중요합니다.

화법은 무엇보다도 음성 언어에 의존하므로 언어 예절 전반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목소리, 명확한 발음의 구사, 상황과 주제에 맞는 화법의 구사는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모든 의사소통, 특히 화법은 말하기와 듣기의 두 요소로 이뤄집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려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화법의 주제까지 의사소통의 3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화법이 가장 좋은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2014-03-01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

인쇄 2014년 1월 15일

발행 2014년 1월 22일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8